

2007. 8. 20.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7년 8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대외협력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우천식(KDI 선임연구위원) 편

□ 사교육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서, 그간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 부동산 문제 등과도 맞물려 복잡해지는 양상

- 사교육 문제는 초·중등 교육의 문제를 포함한 교육 부문 전체, 그리고 노동시장 및 사회문화적 환경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실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실증분석은 부족하고, 오히려 과외에 대한 논쟁 자체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양상임.

□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과외)의 문제를 초중등교육 단계를 포함한 대학진학까지의 학업성취 효과와 대학진학 이후의 노동시장에서의 효과까지를 감안한 생애기대후생(life-time expected welfare) 극대화 이론을 이용하여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접근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최근(1998~2003년) 사교육비 지출규모 및 참여율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의 불균등도가 심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사교육비 지출규모: 소득상위 10분위 대 1분위 = 40.7만원 대 8.5만원 (2003년 기준)

- 학교의 질적 특성에 따른 사교육 수요 여부는 공교육의 질에 좌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과외대책으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중요함을 시사

-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이 주로 '대학진학효과'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

- 대학 및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90년대 말부터 대학의 서열변동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명문대 졸업생에게 경제적 프리미엄이 집중되고 있어 상당 부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는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의 과외정책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교육은 공교육 투자 및 취학률과 같은 대중교육의 제도화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사교육이 공교육과 상호 보완·협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과외를 생애기대수익에 기초한 교육투자의 하나로 이해할 때,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외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있어 대학진학 및 대학교육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임.**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과외 및 대학입시 등에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의 획득경로나 수단도 매우 제한적임.
- 정보가 충분치 않거나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나 낭비를 가져오는 투자수요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며, 정보실패로 인한 과외수요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과외 및 대학교육 관련 교육정보의 취득 정도 (%) ]

교육정보	응답자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 충분	모름
과외학습	학생	10.5	52.7	34.8	1.9	
	학부모	10.8	65.7	21.7	1.6	
대학 및 학과의 입학전형	학생	11.3	56.6	28.2	3.8	0
	학부모	15.7	65	17.5	1.6	0.2
대학 및 학과의 시설 및 현황	학생	22.8	58.6	16.6	1.9	0
	학부모	21.8	64.8	11.7	1.6	0.2
졸업자의 취업 및 진로	학생	25.1	53.8	17.7	3.4	0
	학부모	22.9	63.9	11.4	1.4	0.3

※ 2004년 12월 KDI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초·중등교육을 둘러싼 근래의 교육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최근 들어 대학 및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가 적지 않은 바,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등이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의: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 우천식·이경영(958-4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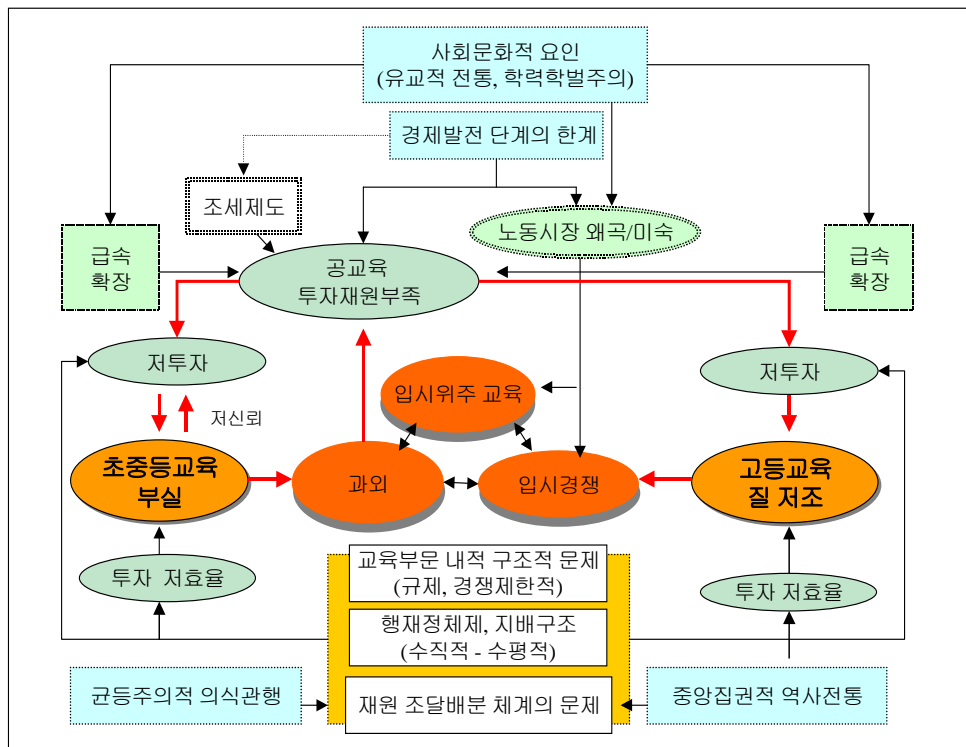
#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내용요약

우천식(KDI 선임연구위원) 편

## 1. 사교육 문제의 이해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 과외는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자녀 혹은 학생 자신의 평생기대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투자 선택임.
- 과외와 개인의 기대후생을 잇는 연결고리는 ‘과외 → 학교 내 학업성과 → 대학입학 성과 → 대학 내 학업성과 → 취업성과 → 취업 후 노동시장 성과’의 구도로 파악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외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초·중등 교육 부분의 내적 요인 뿐 아니라, 대학교육 및 경제구조·노동시장·사회문화적 환경을 포괄하는 종합적 구도에서 파악해야 함.

[ 교육투자의 관점에서 본 과외문제의 이해 ]



- 과외를 생애기대수익에 기초한 교육투자의 하나로 이해할 때, 중요한 문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투자결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량과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지의 여부임.

-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할 때,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나 낭비를 가져오는 투자수요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 정보실패로 인한 과외수요의 왜곡이야말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과외'의 하나이며, 이 부분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임.

## 2.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우천식조병구, KDI)

- 사교육비에 관한 기존의 많은 조사들은 과외의 규모, 집단별·유형별 지출 패턴을 파악하는데 치중하여, 대학 및 노동시장과 과외와의 상호관계를 고려치 못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인문계 고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성적 및 대학진학 성과에 대한 과외의 효과, 그리고 대학서열화, 학력·학벌위주의 채용관행 등이 과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학생의 70% 정도가 조사당시 과외를 받고 있으며, 학부모의 60% 이상이 성적향상을 위해 과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학생과 학부모의 90% 정도는 과외투자비용 대비 학업성적 및 대학입시에 대한 기대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학부모의 80% 이상은 과외학습 결정이 학생(자녀)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 반면, 과외학습 및 대학입시 등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특히 학부모는 대입전형 및 대학의 교육여건, 졸업자의 취업 및 진로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응답자의 80% 이상)'고 보고 있으며, 정보의 획득경로나 수단도 매우 제한적임.
    - 대학 및 입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대학 진학선택이나 과외선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응답이 70~80% 정도로 나타남.
  - 대학서열화 및 기업의 인력채용관행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아직까지 서열화가 심각하며,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나,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변화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외 및 대학·노동시장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높은 정보가 유통되지 못함으로 인해 과외선택 및 대학진학에 있어 상당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3. 외국의 과외 실태 및 과외정책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 5개국을 중심으로 과외 실태 및 정부의 과외 정책을 분석한 결과,
  - 일본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문숭상주의와 교육을 통한 입신이라는 사고가 팽배하여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입시경쟁이 치열하며,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미국에서도 사교육은 존재하나, 그 규모나 공교육에 대한 왜곡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인 5개국 외 TIMSS 조사결과에 기초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루마니아, 체코 등의 동구권 국가와 콜롬비아, 필리핀 등의 개도국에서도 과외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사교육은 공교육 투자 및 취학률과 같은 대중교육의 제도화 정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의 과외정책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과외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사교육이 공교육과 함께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협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가계특성에 따른 사교육비 분포 (이 영, 한양대학교)

- 1998~2003년의 「도시가계연보」 5개년(2001년 제외) 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형태를 분석하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출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함.
- 분석 결과, 1998~2003년 동안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물론 소득·소비·총교육비 대비 비중이 모두 급증하였음.

- 소비지출 및 소득분위별로 비교해 보면, 상위분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경향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남.

\* 2003년의 경우, 소득상위 10분위 VS. 1분위 = 40.7만원 VS. 8.5만원,  
소비지출 분위별로는 48만원 VS. 6만원

- 사교육 참여 가구 비중 역시 소비지출과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소비지출을 기준으로 6분위 이상 가구는 90%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

-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

□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의 불균등도가 심화되는 추세**

- 특히 소비지출 1분위 대비 10분위의 지출액 규모를 비교해 볼 때, 학원비 경우는 1.85배, 개인교습비는 3.52배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이 개인의 대학 진학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자녀의 소득격차 및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학교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와 함께, 중·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중·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양질의 교육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5. 학교의 질, 학업성취도와 과외수요 (김태종, KDI국제정책대학원)

□ **학업성취도 향상을 포함한 학교의 질적 특성이 고교생의 과외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 하고자, 200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조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와 대성학원 수능모의고사 패널 데이터를 연결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자가학습보다는 과외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 과외수요의 결정요인에 회귀분석 결과, 거주지역이나 부모의 학력이 동일한 경우, ① 고교 1~3학년 학력의 부가가치(학교의 생산성)가 떨어지는 학교, ② 교내 학생의 성적의 산포도가 큰 학교, ③ 교내 학생 성적의 평균이 낮은 학교, ④ 공립 고등학교 등 네 가지 특성을 가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과외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결과는 공교육의 질이 낮을 경우, 학생이 자가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과외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하며, 과외대책으로서 공교육 내실화의 중요성을 시사

## 6. 사교육이 대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김태일, 고려대학교)

- 사교육의 효과를 순수한 대입입학을 위한 ‘대학진학효과’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부가효과인 ‘인적자원효과’로 구분하여 이들 효과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사교육이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규명함.

\* 조사대상: 서울의 상위권 주요대학(서울대, 고대, 연대, 이대)의 재학생 1,000명

-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를 보면, 비경험자가 고교 내신등급, 수능점수에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 여부나 고교 1~2학년 때의 과외는 유의하지 않으나, 고3 때의 사교육은 대학 학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이 주로 ‘대학진학효과’를 갖거나 혹은 부정적 ‘인적자원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됨.

- 이상의 결과는 대학진학 이후의 학업성취만을 고려한 경우, 사교육이 사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고, 노동시장의 올바른 선별 기능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

## 7. 대학의 서열화 및 질적 분포 (김진영, 건국대학교)

- 진학사가 제공하는 1994~2003년까지의 학교별·전공별 수능시험 점수 및 대학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의 고등교육시장에서의 대학의 서열화와 질적 분포 변화를 분석함.

- 서열의 고착화 혹은 지속여부에 관해서는 중하위 서열의 대학에서는 상당한 서열변동이 포착되지만, 상위 3분위 이내 대학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소수의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과외수요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특히 90년대 말부터 대학의 서열변동이 둔화되고, 서열구조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또한 대학의 질 제고나 서열변동을 위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경쟁양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관측된 서열변동은 수도권 소재 여부나 학생 수 등의 외생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학과별 평균 수능점수의 대학내·대학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학을 기본 단위로 한 종래의 서열구조는 완화되는 반면, 전공에 따른 새로운 서열이 형성·심화되는 추세로 분석됨.
  - 향후 이러한 변화를 중상위권 대학으로 확산시킬 경우, 과외수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시사.

## 8. 노동시장성으로 본 학력학벌주의의 실상 (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노동패널조사(KILIPS) 1~5차연도 자료와 중앙일보 및 진학사의 개별 대학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 간 및 대학서열에 따른 소득·임금 차이를 분석함.
  - 분석결과, 고졸자 및 대학 중퇴자에 대한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학력 프리미엄은 매우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는 '학위효과(sheepskin effect)'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연령별 학력 프리미엄을 비교해 보면, 최근 대학교육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
  - 수능성적에 따른 대학서열의 임금효과는 상위대학으로 갈수록 성적차이에 비해 임금의 차이가 훨씬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음. 결국 임금 프리미엄 순위나 입학성적 등으로 보아 최상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아직도 4년제 대학의 투자수익은 높은 편이며, 명문대 졸업생에게 경제적 프리미엄이 집중되고 있고, 안정된 고수익이 보장되는 의료 관련 학과나 교육대학의 부상 등의 요인이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팽창을 초래한 원인으로 파악됨.

## 9.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과외수요 창출 요인 (김경근, 고려대학교)

-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연면한 역사성과 견고한 사회문화적 존립기반을 갖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제한된 기회구조 아래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되고 있으며, 취약한 공교육의 경쟁력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토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사교육 수요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실력 중시의 사회적 선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제한된 기회구조에 의해 지배되는 한국사회에서 '패자부활'의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진정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체계 및 사회이동 통로의 다양화, 개인주의적 성향의 강화, 가족 구성 원리의 변화 등도 어떤 형태로든 교육열의 결합방식에 변화를 초래하여 사교육 수요를 경감시킬 개연성이 큰 것으로 전망